

고령사회와 소셜워커의 역할 일본의 사회복지사제도의 현황



야마무라 무즈미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회장

일본의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이 23년 전에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의 유자격자수는 120,000명을 넘어 일본의 사회복지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활약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영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일본의 사회 상황 안에서 생활 곤란에 직면한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살에 있어서 일본의 자살률이 선진 각국 중에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등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자 인구가 피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상황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 사회복지사가 더욱 더 필요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사회복지사회가 가지고 있는 과제는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과제는 이하와 같습니다.

1) 국가자격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담보

사회복지사는, 소셜워크의 실천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천력을 포함해 그 역량을 평생 높여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생애 연수 시스템」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으로 인증된 역량을 국가가 인정하여 공적인 포스트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가 활약할 수 있는 환경정비

역량있는 사회복지사가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전체가 사회복지사의 존재를 인식하고, 사회복지사가 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황보고(사회복지 진흥 시험센터의 조사 결과): 2008년 12월 보고

① 제 21회 (2009년)의 국가 시험 결과에서
합격자 1만 3000명 → 합계 사회복지사 등록자수 12만명
일본사회복지사회 회원수 → 금년도에 3만명을 넘었다

② 사회복지사의 직종별 분류
개호/복지 분야 7할
20대, 30대 합쳐서 6할

이 숫자를 통해 일본사회복지사회가 회원에 대해 해야 할 일은, 조직에 속한 젊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력을 습득 하도록 하여, 차세대를 키운다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는 일이다.

③ 현장에 있는 회원의 불만

직장내/ 사회적 인지의 낮음(인정받지 못함)

대우의 개선 → 이것은 현장에서의 불만임과 동시에, 이직자의 이직한 이유로서도 높은 회답이었음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개정 후의 움직임

2007년의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개정 후

·인재확보의 방안으로써 ①새로운 커리큘럼에 의한 실습지도의 사고 방식

② 「생애 연수」라는 국가 자격 전문직의 본래의 이념을 명확화한 본 회에의 큰 기대

·동시에 「공(公)의 자격」에 대한 윤리—사회에서 그것이 정당한 업무를 행하고 있다고 담보할 필요성이, 직능단체로서의 본회에 직면한 과제.

·전문 사회복지사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 「실천자」이다 라는 것과 「할수 있다」는 인정 시스템의 필요성

이 3 가지 요소는 사회복지사가 향후 ①사회적인 인지 확립 ②사회복지사의 업무에 맞는 역량에 대한 대우의 보증 ③직역의 확대를 예로 새로운 영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전 제시에 중요한 것이다.

일본사회복지사회의 방안

·전문직 단체간의 연계와 통합화를 모색; 社專協 4 단체

·학교(社養協 등), 현장사무소(경영자 협의회, 老健協 등)와의 협력

·임용 및 직역 확대를 향한 정책제언 기능과 싱크탱크 기능, 어느쪽 기능에도 예비던스 필요

·중기 계획 책정(2011년도 까지) → 장래의 비전이 보이는 계획

*조직적 과제

법인화에 대해서는 이미 47 지부 중에서 43 지부가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중에 47 전부가 법인화가 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는, 이것으로 인하여 새롭게 전개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현황의 보고와 법 개정등에 의한 움직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일본사회복지사회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은, 국민을 위해 이 자격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이며,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국가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설명할 때 「연결하다」 「지키다」 「지지하다」라는 3 가지의 의미를 자주 예로 듭니다. 이것은, 소셜워크의 역할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변화하다」를 추가 시키고 싶습니다.

「변화하다」는 CHANGE 입니다. 이 「변화하다」라는 단어는 일본의 「소셜 워커의 날」의 포스터의 테마이기도 했습니다. 오오하시 켄사쿠(大橋謙策)교수님이 선두에 서서 이 기획을 추진하여 다수의 단체의 참가에 의해 실사가 가능 했습니다.

이제, 소셜워커 자신이 변화하여, 소셜워커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프로필

야마무라 무츠미 (山村 睦)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회장

일본 사회복지법인 텐류 후생회 장애인 지원사업부장

경력

- 1977 년 3 월 동지사대학 문학부 사회학과 사회복지전공 졸업
- 1977 년 4 월 사회복지법인 텐류후생회(天龍厚生會) 채용 신체장애자요양시설 후생기숙사 지도원
- 1979 년 4 월 일본 후생성 (후생성사무관 보좌원으로서 사회국갱생과 배속)
- 1979 년 12 월 일본 후생성 후생사무관
- 1980 년 4 월 일본 국립신체장애자 재활센터 배속(생활지도 전문직)
- 1982 년 4 월 일본 후생성 사회국 서무과 배속
- 1982 년 10 월 일본 후생성 사회국 노인복지과 배속
- 1983 년 4 월 사회복지법인 텐류후생회 복지 연수과 주임지도원
- 1988 년 4 월 신체장애자 요호(療護) 시설 하마나료(濱名寮) 주임지도원
- 1990 년 4 월 재무부 사업과 계장
- 1993 년 4 월 사업과 과장보좌
- 1994 년 4 월 총무부 총무과 과장
- 1999 년 4 월 재무부 회계과 과장
- 1999 년 8 월 의료법인 오모토회 통괄본부총무과장(오키나와현) 출향
- 2001 년 4 월 사회복지법인 텐류후생회 의료보건부 의무과장 겸 노인보건과장
- 2005 년 4 월 “ 장애인 지원사업부장 (현재)

- 2007 년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부회장
- 2009 년 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사회 회장

高齢社会と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 日本の社会福祉士制度の現状



山村 睦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 会長

日本の社会福祉士制度は、「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が23年前に施行されて現在に至っています。その間、社会福祉士の有資格者数は120,000人を超えることとなり日本の社会福祉を支える重要な資格であると認識されています。幅広く社会福祉に関わる多くの領域で社会福祉士は活躍し、また、近年社会福祉士が必要とされる新たな領域が現れてきています。それは、一方では日本における社会状況の中で生活困難に陥る人々が増加していることを示さざるを得ません。例えば、自殺者の問題に関しても日本は自殺率が先進各国の中で上位を占めていることなど深刻な問題が多々あります。

日本は、今後高齢者人口のピークを迎えます。そして、「少子化」の傾向にあります。社会状況の変化と少子高齢化によって社会福祉士をますます必要とする時代へと進んでいるのです。そのため、日本社会福祉士会が抱える課題は大変に重いものです。

現在なお十分ではないことをふまえ、その主なる課題を掲げます。

1) 国家資格としての社会福祉士の力量を担保する。

社会福祉士は、ソーシャルワークの実践者と認識しています。したがって実践力を含めその力量を生涯高めていくためのシステムを構築しなければならない。

現在、その「生涯研修システム」を検討中です。また、そのシステムで認証された力量を国が認知し、公的なポストを含めて積極的に任用を拡大する必要があります。

2) 社会福祉士が活躍できる環境の整備

力量のある社会福祉士でも十分にその能力を発揮できる環境にはない現状です。社会全体が社会福祉士の存在を認知し、そうした働きやすい環境を築くことが必至であります。

現状報告 (社会福祉振興試験センターの調査結果) : 2008年12月報告

①第21回(2009年)の国家試験結果から

合格者1万3000人 → 合計社会福祉士登録者数12万人

日本社会福祉士会会員数 → 本年度3万人を超える。

②社会福祉士の職種別分類

介護・福祉分野で7割

20歳代、30歳代あわせて6割

こうした数字から日本社会福祉士会が会員に対して負うべき視点は、組織に属する若い人達に目標をもって具体的な実践力を身につけてもらう。次世代を育てるという重要な使命を負う。

③現場にいる会員の不満

職場内・社会的認知の低さ (認めてもらえない)

待遇の改善 → これらは、現状の職場における不満であると同時に、離職した者の理由としても同様に高い回答結果

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改正後の動き

2007年の社会福祉士及び介護福祉士法改正後

- ・人材確保のための方策として、①新カリキュラムによる実習指導の考え方、②「生涯研修」という国家資格専門職の本来の理念を明確化し本会への期待が増大
- ・同時に、「公の資格」に対する倫理—社会に対しそれが正しい業務を行うことを担保する必要があるが職能団体としての本会に迫られている。
- ・専門社会福祉士の議論も行われており、「実践者」であること「できる」ことの認定システムの必要性

これら3つの要素は、社会福祉士が今後、①社会的な認知を確立する。②社会福祉士の業務に見合った力量に対する待遇の保証、③職域の拡大を例に新たな領域に迅速に対応できるというビジョンが導かれるものです。

日本社会福祉士会の取り組み

- ・専門職団体間の連携と統合化を模索:社専協4団体
- ・学校(社養協等)、現場事業所(経営者協議会、老健協等)との協働
- ・任用及び職域拡大等に向けた政策提言機能とシンクタンク機能、いずれの機能にもエビデンスが必要
- ・中期計画の策定(平成23年度まで)→将来ビジョンが見える計画
- ・組織的課題

法人化については、すでに47支部のうち43支部が達成し、今年度中に47全ての支部が法人化することになります。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は、これにより新たな展開を迎えることとなります。

以上、現状の報告と、法改正等による動き、そして、それに対して日本社会福祉士会の取り組みについて述べました。課題は多いのですが我々の役割を考えると国民のためのこの資格を生かすことが責務であり、社会福祉士の資格は国家の使命であります。

社会福祉士を説明するとき、「つなぐ」、「まもる」、「ささえる」という三つの意味をよく引き合いに出します。これは、まさにソーシャルワークの役割を端的に表現したのですが、それに加えて私は、「かえる」という言葉を申し上げます。

かえる、とはまさにCHANGEであります。この「かえる」という言葉は、日本においてソーシャルワーカーデーのポスターのテーマとしたのです。大橋謙策先生が先頭にたってこの企画を推進され多数の団体の参画を得て実施できました。

まさに、ソーシャルワーカー自身が変わる、ソーシャルワーカーが社会を変える、そうした時期なのです。

プロフィール

山村 睦 (やまむら むつみ)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 会長

昭和52年 3月 同志社大学文学部社会学科社会福祉専攻卒業
昭和52年 4月 社会福祉法人天竜厚生会採用 身体障害者療護施設厚生寮指導員
昭和54年 4月 厚生省出向 (厚生事務官補佐員として社会局更生課配属)
昭和54年 12月 厚生事務官
昭和55年 4月 国立身体障害者リハビリテーションセンター配属 (生活指導専門職)
昭和57年 4月 厚生省社会局庶務課配属
昭和57年 10月 社会局老人福祉課配属
昭和58年 4月 社会福祉法人天竜厚生会復職 研修課主任指導員
昭和63年 4月 身体障害者療護施設浜名寮主任指導員
平成 2年 4月 財務部事業課係長
平成 5年 4月 事業課課長補佐
平成 6年 4月 総務部総務課課長
平成11年 4月 財務部会計課課長
平成11年 8月 医療法人おもと会統括本部総務課長 (沖縄県) 出向
平成13年 4月 社会福祉法人天竜厚生会医療保健部医務課長兼老人保健課長
平成17年 4月 同 障害者支援事業部長 現在に至る

平成19年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 副会長
平成21年 社団法人日本社会福祉士会 会長